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 權燮(1671-1759)의 「夢記」와 柳慶種(1714-1784)의
「意園誌」를 중심으로 —

안 세 현 *

<目次>

- | | |
|------------------------------|----------------------------|
| I. 문제 제기 | III. 문학·회화의 교섭과 閑適의
형상화 |
| II. 고립된 지식인의 자기 위안과
淸福 추구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玉所 權燮(1671-1759)의 「夢記」와 海巖 柳慶種(1714-1784)의 「意園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몽기」와 「의원지」는 모두 현실에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하고 있고,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함께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문학사·예술사에서 주목해 볼만하였다.

옥소는 노론, 해암은 남인으로 당색은 달랐으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정점으로 치달은 당쟁 속에서 소외·고립된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같은 처지였다. 그리하여 옥소와 해암은 현실에서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욕망을 「몽기」와 「의원지」라는 상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정신적인 淸福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 shahn@kangwon.ac.kr

옥소와 해암은 비록 정치적으로 소외·고립된 처지였으나, 경제적·문화적으로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옥소는 청풍의 한천장·능강동과 문경의 화지장 등의 장원을 경영하였고, 해암은 안산에 근거를 두고 해암동천을 경영하며 만권장서가로서 문화교류의 중심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옥소와 해암은 18세기 문학과 예술을 주도하였던 農淵 그룹이나 안산의 남인 그룹에 소속되어 일찍부터 京華 문화의 세례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문학과 회화의 교섭이 활발하였던 풍정 속에서 성장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다. 경화 문화 속에서의 성장과 장원 경영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문학과 회화가 교섭을 이루고 閑適한 삶을 즐기는 自娛의 공간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이는 전대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에 주로 보이는 불우한 지식인의 표상이나 세상에 대한 비분강개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주제어】 권섭, 유경종, 몽기, 의원, 상상의 공간, 淸福, 閑適

I. 문제 제기

본고는 玉所 權燮(1671-1759)의 「夢記」와 海巖 柳慶種(1714-1784)의 「意園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몽기」는 옥소 권섭이 1686년인 16세부터 1752년인 82세까지 꿈에 본 奇勝을 기록한 것인데, 현재 56편이 문집인 『옥소고』에 그림과 함께 전하고 있다. 「의원지」는 해암 유경종이 1756년 43세에 지은 것으로, 상상 속의 정원[意園]을 기록한 것이다. 해암의 처남이자 지우인 豹菴 姜世晁(1713-1791)은 이 글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지는데, 아직까지 그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몽기」와 「의원지」는 모두 현실에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하고 있고,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함께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문학사·예술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상상의 세계를 문학의 소재로 하는 것은 전근대 사대부 문인지식인에게

금기시되었다. 또한 그림에 題畫詩를 붙이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기문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옥소의 「몽기」나 해암의 「의원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몽기」는 제작의 경위, 전반적인 내용, 산수유기적 면모, 경관의 특징 등이 밝혀졌다.¹⁾ 특히 옥소의 생애와 「몽기」의 상관성을 따져본 것이나 「해도별서」의 분석 등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의원지」는 조선후기 주거문화의 변화와 명칭문학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상상의 정원을 소재로 한 일련의 산문 내에서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가 해명되었다.²⁾ 특히 「의원지」를 18세기 안산권 남인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예술을 통한 상처 치유의 한 사례로 본 것은 주목되는 성과이다.³⁾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옥소의 「몽기」와 해암의 「의원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 1) 옥소의 「몽기」는 이창희가 2003년 역주본 『옥소 권섭의 꿈세계: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를 출간하고, 2007년 필사본 『옥소고』 제천본과 문경본 전체가 영인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주요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이창희, 「옥소 권섭의 문학과 <몽기>」, 『비평』 12, 생각의 나무, 2004.; 황경일, 「옥소 권섭의 산수 산문 연구: 『海山錄』과 『夢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호석, 「『옥소고』 소재 문화의 제작에 대한 연구」,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조영임, 「玉所 權變의 「夢記」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안계복, 「옥소 권섭의 꿈의 세계에 나타난 경관 특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권정은, 「권섭의 꿈의 기록과 그 심리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6,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 2) 안대회, 「상상속의 정원」, 『문헌과 해석』 16, 문헌과해석사, 2001.; 김동준, 「海巖 柳慶種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안대회,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조선 후기 산문가의 기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 3) 김동준, 「王世貞 코드로 읽는 生誌銘과 意園: 18세기 안산권 문인들의 불우와 위안의 예술적 형상화」, 『한국한문학회 2013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3.6.8.

첫째, 조선후기에 「몽기」·「의원지」와 같은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이 다수 창작된 정치적 배경을 밝힌다. 옥소의 「몽기」와 해암의 「의원지」는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에 창작된 것으로 18세기 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여러 시문의 시작을 알리는 글이다.⁴⁾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은 경신환국(1680, 숙종 6), 기사환국(1689, 숙종 15), 갑술환국(1694, 숙종 20), 신임옥사(1721-2, 경종 1-2), 무신란(1728, 영조 4) 등으로 당쟁이 극심한 시기였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되었고, 노론·소론·남인 사이에 사활을 건 정치투쟁이 벌어졌다. 옥소는 안동 권씨로 백부가 尤庵 宋時烈的 적통으로 알려진 寒水齋 權尙夏로서 노론의 핵심 가문이었다. 해암은 진주 유씨로 여흥 민씨·사천 목씨와 함께 근기남인의 3대 가문 중 하나였다. 옥소와 해암의 가문은 정치적 사건에 따라 부침을 겪었으며, 이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옥소와 해암은 당색은 달랐지만 출사를 포기하고 평생을 재야에서 보내게 되었다.

둘째, 18세기 이후 활발해지는 개인 장원의 경영과 京華 문화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옥소와 해암은 정치적으로 좌절된 삶을 살았지만, 상당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인 장원을 경영하였다. 옥소는 충북 청풍에 寒泉莊과 凌江洞을 비롯하여 경북 문경에 花枝莊 등을 경영하였으며,

4) 안대회(2004)가 조선후기 상상의 정원과 관련된 시문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許筠(1569-1618)의 「與李懶翁」, 李用休(1708-1782)의 「九曲幽居記」, 柳慶種의 「意園誌」, 張混(1759-1828)의 「平生志」, 丁若鏞(1762-1836)의 「題黃裳幽人帖」, 徐有榘(1764-1845)의 「怡雲志」, 林得明(1767-?)의 「意園行」(5언고시), 李學達(1770-1834)의 「童子鄭寧甲意園山水圖序」, 洪吉周(1786-1841)의 「爰居念」, 李裕元(1814-1888)의 「橘山意園圖」. 이후 안대회는 兪晚柱(1755-1788)의 「仁智洞天記」를 새로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안대회, 『고전 산문 산책: 조선의 문장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8, pp.338-346. 吳璦(1700-1740)의 「記夢」(『月谷集』 卷14)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글이다. 이 글은 오원이 꿈속에서 常德村이란 곳을 찾아가 자신만의 공간을 설계하는 내용이다. 오원의 「記夢」에 대해서는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시대 문인의 땅과 삶에 대한 문화사』 4, 휴머니스트, 2006, pp.143-145. 참조.

해암은 경기 안산에 이른바 海巖洞天을 경영하였다. 이렇듯 실제로 장원을 경영한 경험이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을 창작하는 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옥소와 해암은 문학·예술 방면에서 경화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다. 옥소는 젊은 시절 경화 문화를 주도한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에게 훈도를 받았고, 시인 槎川 李秉淵, 화가 鄭歎 등과 교유하였다. 해암은 재야의 문형으로 일컬어졌던 惠實 李用休, 문인이자 화가인 강세황 등과 문학적·예술적으로 교유하였다. 이처럼 문학과 회화의 교섭이 활발하였던 경화 문화에 힘입어, 「몽기」와 「의원지」와 같이 문학과 회화가 공존하는 작품이 탄생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전통 속에서 「몽기」와 「의원지」가 지니는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몽기」는 夢記(또는 記夢)의 전통 속에서, 「의원지」는 명칭문학의 수용 측면에서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몽기」는 옥소 스스로 언급하였듯이 白沙 李恒福(1556-1618)의 「記夢」을 계승한 것이다. 「의원지」의 창작에는 명칭 시대 祁彪佳(1602-1645)의 『寓山志』, 王世貞의 「弇山園記」, 黃周星의 「將就園記」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⁵⁾ 그러나 「몽기」와 「의원지」 창작의 문학적·예술적 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쪽에서는 이상적인 세계와 삶을 형상화한 陶淵明의 「桃花源記」와 白居易의 「池上篇」(장편

5) 해암이 「의원지」에서 명나라 문인 화가인 文徵明을 언급하였고, 처남이자 지우인 강세황이 황주성의 「장취원기」를 열람한 것으로 보아 명칭문학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황주성의 「장취원기」는 청나라 張潮가 편찬한 『昭代叢書』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글은 강세황의 『山居雅集』(강경훈 소장본)에도 들어 있다. 강세황은 자신이 읽었던 책을 필사하여 책으로 묶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산거아집』이다. 이 책의 끝 부분에 황주성의 「장취원기」(4편), 「將園十勝」, 「就園十勝」, 「附仙亂紀畧」 등이 필사되어 있다. 말미에 “癸巳初夏畢書”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73년에 필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3, p.63.; 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미의식과 시문창작」, 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57-58. 참조.

고시), 불우한 지식인의 울분을 우의적으로 그린 王績의 「醉鄉記」와 蘇軾의 「睡鄉記」 등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安堅의 「夢遊桃源圖」, 16·17세기에 창작된 記夢·夢遊錄 및 「취향기」·「수향기」 계열의 기문, 16세기 사람이 노래한 壺中天地, 마음을 의인화한 「神明舍記」 등이다. 이들 작품과의 관련 속에서 「몽기」와 「의원지」가 지닌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고립된 지식인의 자기 위안과 淸福 추구

「몽기」⁶⁾는 옥소가 16세부터 82세까지 총56편의 꿈을 기록한 것이다. 대개 기문, 시, 그림이 하나로 엮여 있다. 그렇다면 옥소는 지극히 개인적인 꿈을 왜 이토록 오래도록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일까? 더욱이 「몽기」의 서문에서 스스로 말했듯이, ‘과장되고 허황되어 진실함이 없는 내용이 많은 것[多近於過誕而無德]’을 말이다.

그림을 그려 두고 한가로이 보고자 한 것은 흥이 일어나서이다. 지역에 있는 이름난 산수 중에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곳을 그렸고, 발길이나 눈길이 한두 번 이르렀지만 항상 가 볼 수 없는 곳을 그렸다. 상상 속에서 이르는 곳도 종종 별세계로 만들어 그림으로 그려서 臥遊의 맑은 감상거리로 삼았다. 나는 어려

-
- 6) 『옥소고』는 현재 제천본과 문경본 2종이 전하고 있다. 「몽기」의 경우 제천본에는 「雜錄」 내에, 문경본에는 「推命紙」 내에 모두 ‘夢記’란 제목으로 들어 있다. 체제를 보면 몽기 전체의 서문이 있고 이어서 「記夢說」, 「聖則夢說記」가 나온다. 그리고 이른바 ‘夢畫’(이창희 명명)의 서문이 있고 이후 꿈속의 기승을 글로 기록한 문장과 그림으로 그린 것이 함께 나온다. 본고에서는 옥소가 ‘夢記’란 제목을 달고 그 아래에 관련 글들을 편제해 놓은 것에 의거하여 ‘몽기’로 부르기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몽화 부분을 가리킨다.
- 7) 단적으로 옥소가 81세인 1751년 10월 1일 꿈에 자신이 바지를 벗은 채 준마를 타고 강 가운데에서 물길을 따라 가는 것을 기문과 그림으로 남겨둔 것을 들 수 있다.

서부터 대부분 산수 간에 살았으며 산수에 대한 꿈을 자주 꾸었으니, 한평생의 꿈과 현실이 모두 산수 속에 있었다. 그런데 또 무슨 일로 그림까지 그리게 되었는가? 이제는 늙어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은 노쇠하여 문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정신의 맑은 기운도 쇠해져서 꿈도 맑은 때가 매우 드물어 창작 쓸쓸히 못다 한 인연을 저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⁸⁾

인용문은 「몽기」 서문의 일부이다. 「몽기」는 꿈속에서 본 奇勝을 글로 기록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所遇奇勝之境, 則有別錄而有畫] 기승은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명소로 이름난 곳이지만 자신이 직접 가보지 못한 곳, 가보긴 하였으나 자주 갈 수 없는 곳,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곳이 그것이다. 앞의 두 가지는 현실에 실재하는 것이며, 뒤의 하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인용문의 내용을 볼 때 서문은 만년에 지은 것이다. 현전하는 「몽기」를 보면, 총 56개에서 50개가 50대 이후에 지어진 것이며, 그 이전에는 10대 2개, 20대 1개, 30대 3개가 전부이다. 이로 보면 「몽기」는 만년에 臥遊의 재료로 삼아 漫興을 즐기기 위해 지은 것처럼 보인다.⁹⁾

그러나 「몽기」의 창작 시기와 옥소의 생애를 연관시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특히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공간을 기록한 다음의 세 편이 주목된다.

-
- 8) 權燮, 『玉所稿』(영인본) 冊9(다운샘, 2007), 「序」, p.362, “作畫圖看, 閒者漫興. 域中之名山水, 願見而未能見則畫, 足目之一二到, 而未能常常焉則畫, 意想所至, 亦往往辨出別地界而畫, 爲臥遊清賞之資. 余自少多在山水間, 又多作山水夢. 一生夢與覺皆山水, 又何事於畫? 今則老矣, 兩脚軟, 一身疲, 不能一進一步出門外, 精神消, 夢清時又絕稀, 將孤負未盡之緣矣.” 번역은 이창희의 역주본(2003)을 따랐으며 필요한 부분은 필자가 수정하였음. 앞으로 「몽기」에서 인용할 경우 제목만 명기함.
- 9) 실제로 옥소는 「瀟湘八景圖」·「高山九曲圖」 등의 산수화나 「岳陽樓圖」·「獨樂園圖」 등의 樓園圖 등을 소장해 두고 臥遊를 즐겼다. 옥소의 그림 소장감과 감상에 대해서는 윤진영, 「옥소 권섭의 그림 취미와 회화관」, 신경숙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참조.

제목	꿈꾼 날/기문 작성 시기	옥소의 생애와 관련 사항
百丈高臺	16세: 1686년 11월 11일	-관례를 올리고 李世弼의 딸과 혼인함. -송강 정철의 5세손 鄭載文과 친구가 됨.
海島別墅	19세: 1689년 8월 1일	-기사환국으로 백부 권상하의 스승인 송시열(1월 귀양, 6월 사사), 외증조모 집안의 김수항(4월 유배지 진도에서 사사), 김수홍(1월 장기 유배) 등이 사사되거나 유배됨. -4월 인현왕후의 폐비에 관한 논의가 일자, 吳斗寅 등 86명이 상소를 올림. -옥소는 과거 공부를 중단하고 朴世輝와 함께 상소를 올리는 한편, 궐문 밖에서 통곡하는 시위를 벌임. -5월 인현왕후가 폐위됨. -옥소는 가을에 충북 제천의 黃江으로 돌아감.
大雲樓	40/53세: 1710년 1월 13일/ 1723년 2월 12일	-1721년 가을 백부 권상하의 상을 당함. -1722년 신임사화로 노론 4대신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사사. -1723년 1월 장남 權震性이 옥새 위조 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됨. -1723년 12월 백부 권상하의 관작이 추탈되고 계부 권상유와 외숙 이의현 등이 삭직 혹은 門外出送됨. -1724년 계부의 상을 당함.

옥소는 꿈에서 깨면 바로 글로 적고, 이 글을 토대로 동생이나 손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글과 그림이 거의 함께 이루어졌으며, 간혹 미처 그림으로 그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후에 글을 토대로 그림을 그렸다. 따라서 기문은 대부분 꿈을 꾸 시점에 바로 기록한 것이다. 다만 「大雲樓」처럼 전에 꿈꾼 것을 나중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것

은 꿈을 꾸는 시기보다 이를 글로 기록한 시점이다.

「몽기」는 16세에 지은 「百丈高臺」에서 시작된다. 옥소는 이 글에서 백 길이나 우뚝 솟은 높은 臺에 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루마리를 두 손으로 받는 모습을 기록하였다.¹⁰⁾ 이때 옥소는 관례를 치르고 공식적인 어른이 되었다. 옥소는 14세 때 아버지를 잃었지만, 백부 권상하의 슬하에서 지내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외조부는 좌의정을 지낸 李世白(1635-1703)인데, 영조 때 문형이 되는 외숙인 李宜顯(1669-1745)과 함께 공부를 하였다. 또한 김창협과 김창흡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어린 나이였지만 崔錫鼎·吳道一 등 당대 명사들의 모임에 자주 참여하기도 하였다.¹¹⁾ 이처럼 옥소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당시 경화의 여러 명사들에게 출입하며 수학을 하였는데, 「백장고대」에는 바로 세상을 향한 옥소의 장대한 포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세 때 지은 「해도별서」를 보면 장대하면서도 호기에 찬 포부는 사라져버린다. 「해도별서」는 「백장고대」에 바로 이어지는 「몽기」의 2번째 글이다. 출사의 의지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큰 바다 건너 외딴 섬의 별서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었다. 옥소는 이 「해도별서」를 당대 이름난 화가 曺世傑에게 부탁하여 그림을 그린 후 꿈속에서 함께 노닐었던 洪致中·尹明佐 등의 시를 받아 『奇勝帖』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종형 權煜(1695년 작), 종제 權燾(1695년 작), 홍치중(1695년 작), 李周卿(1695년 작), 윤좌명(1697년 작), 任墜(1700년 작) 등으로부터 서발문을 받았다. 옥소는 『기승첩』이 오래도록 淸福을 누리게 될 조짐으로 여겼다.¹²⁾ 그러나 任墜(1640-1724)

10) 權燾, 「夢記-百丈高臺」, “丙寅至月十一日, 午枕初圓, 彷彿見樹林間百丈高臺, 迥立於三層閣後. 一躍而登之, 東帛一端自天而降, 乃張手而捧之.”

11) 옥소는 12살 때 서울 광동교에서 농암과 삼연을 비롯하여 최석정·오도일 등이 함께 한 詩會에 참여하였고, 수포교로 이동하여 趙泰興·洪萬宗 등이 질탕하게 노는 모임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權燾, 『玉所稿』 冊7, 「散錄內篇」 1, p.514.

12) 權燾, 『玉所稿』(석인본) 卷10, 「題奇勝帖後」(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이 말하였듯이, 옥소가 출사하여 세상에 쓰이게 될 것이지만 사업과 공명이 그의 뜻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공명을 이루고 만년에 致仕하여 바닷가의 별서로 물러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찌되었건 간에 벼슬길에 나아가 무한한 풍파를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³⁾ 옥소의 『기승첩』은 단순히 한때의 눈요깃감이 결코 아니며, 여기에는 출처에 대한 옥소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다.¹⁴⁾

옥소는 왜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아직 출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생의 만년에나 계획할 은퇴를 꿈꾸게 된 것인가?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해에 기사환국이 일어나 옥소 가문과 친밀했던 여러 가문이 피해를 입었다. 옥소 또한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상소를 올리는 한편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결국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말았다. 그리고 옥소는 그해 가을 백부의 집이 있는 충북 체천의 황강으로 돌아갔다. 이후 24세인 1694년 갑술환국으로 노론이 재기하자, 옥소는 다시 과거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였다.¹⁵⁾ 계부의 강압에 의해 32세에 과거에 응시한 것을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p.304.에서 재인용), “彌雲翁疇昔之夢, 宜若不偶然, 而迹其平生, 終未能彷彿於是焉, 則翁之恨可知已. 何幸吾輩得占奇遊於一枕之上, 而不但其湖山景物, 依然翁夢裏之所躡. 且能得與翁之後孫共辦一宗之歡娛, 豈翁以未就於己者, 有所冥詔於吾輩, 使得以紹述其志, 以爲永享清福之一大兆驗也歟.” 彌雲은 이항복의 호이며, 이항복의 꿈은 「記夢」을 말한다.

- 13) 任墜, 『水村集』 卷9(叢刊149), 「題權調元奇勝帖後」, p.194, “調元, 麟角鳳窟也, 必出而爲當世用. 其事業功名, 未知其能得盡, 其才如其意, 而告老休退於海上別墅, 果如夢中所占否. 若然者, 蓋將身入宦海, 閱歷無限風波而後, 始就安閒境界, 吾恐調元之夢憂樂兼焉. 戒之哉戒之哉!”
- 14) 옥소의 종형 권옥 역시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權煜, 『玉所稿』 冊11, 「書奇勝錄後」, p.319, “雖然, 調元之爲此, 非獨爲一時寓目之資而已也, 則其有期於他日者, 其志不偶然也. 然則其將爲避世之民, 而專桃源千畝之富耶? 抑欲爲謝事之相, 而有綠野八龍之勝耶? 若欲兼二者而有之, 則世間安有楊州之鶴耶? 此彌翁當日之所艷羨而不能得者, 而調元豈易爲之耶?”
- 15) 만년에 지은 「散錄內篇」 1(『玉所稿』 冊7, pp.120-121.)을 보면 젊은 시절 자신의 성격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지나치게 용맹하였으며[余少日殆躁暴殆勇銳], 일생동안 사람들의 비방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余於世一生多訛議] 옥소는 25-6세 때인 1695-6년에 도봉서원의 色掌으로 있었는데, 이때 송

끝으로 출사의 뜻을 완전히 접었다. 38세인 1708년에 쓴 「夢記-傍海古閣」에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古閣을 타고 신나게 하늘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었듯이¹⁶⁾, 옥소는 이후 세상사에는 관심을 끊고 제천과 문경의 집을 오가고, 틈나는 대로 전국의 산수를 유람하며 세월을 보냈다.

「몽기」에는 38세 이후 53세 이전까지 지은 것이 한 편도 없다가, 53세인 1723년이 되어서야 「抱月樓」·「大雲樓」 등이 보인다. 그런데 이 두 글에서 옥소는 자신을 도사나 부처에 비의하였다. 특히 「大雲樓」에서는 당시의 심회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아! 내가 물과 구름 같은 심성으로 瓢鉢과 같은 신체가 되어, 일곱 길을 유람하며 산천을 두루 돌아보고 많은 세월을 보냈다. 이제 백발의 나이가 되어 외롭고 쓸쓸하며 궁색함이 더욱 심해지고 더구나 처자식의 즐거움도 없다. 짐치는 자에게 나의 운명을 짐치게 하였는데, 석가의 후신이라는 점괘를 얻고 크게 웃었다. 이 꿈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마치 죽은 뒤에는 부처와 인연이 있는 듯하고, 우연이 아닌 奇緣인 듯하다. 마침내 장난삼아 종이에 기록하여 대운투의 기문으로 삼고, 조만간 부처님께 질정을 하고자 한다.¹⁷⁾

옥소는 외롭고 쓸쓸하며 궁색함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 처자식의 즐거움도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실에서 오는 우수를 옥소는 불교적 세

시열을 도봉서원에 배향하는 문제로 스승인 농암과 갈등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옥소는 백부인 권상하에게 질책을 받았으며, 이후 농암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 「옥소 권섭의 학풍과 현실관」,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문화』, 다운샘, 2009, pp.20-21. 참조. 옥소가 출사를 포기한 데에는 그의 기질이나 같은 당인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16) 權燮, 「夢記-傍海古閣」, “余曰: 浮家浮宅亦自好. 我在其中, 一窮天際, 亦一快事.”
- 17) 權燮, 「夢記-大雲樓」, “噫! 余以水雲心性, 瓢鉢身世, 浮游七路, 山川閱過, 許多歲臘. 今至白鬢之年, 孤寒窮疇之益甚, 頓無室家妻孥之樂. 使日者推步吾命, 得瞿曇後身之兆, 仍大笑. 追繹斯夢, 若有冥緣, 不偶而奇. 遂戲書于紙, 爲大雲樓題名之記, 欲早晚發願於黃面老子而質焉.”

계관을 통해 해소해 보려고 한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 옥소는 장자를 잃는 등 큰 시련을 맞았다. 장자의 죽음은 크게 보면 신임 옥사에 연루되어 벌어진 것이었다.

옥소가 출사를 포기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 가문의 위치상 세상의 비방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옥소는 54세인 1724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述懷詩敍」와 「自述年紀」를 지었는데, 두 글의 서두에 어릴 적 자신의 생애를 점친 점괘를 비중 있게 기록해 두었다. 「술회시서」에서는 “품성이 소활하여 일 없이 비방을 들을 것이요.”라 하였고, 「자술연기」에서는 “8번 귀양 갈 것이며 3번 큰 바다를 건널 것이나,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서 수명이 팽조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⁸⁾ 또한 옥소는 중년이전에는 자신의 말과 사업을 믿어 주던 이들이 많았는데, 중년 이후에는 자신을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과반이 넘었다고 한탄하기도 하였다.¹⁹⁾ 진사 崔昌億이란 자가 시골에 사는 늙은 옥소를 찾아와 왜 士論을 수습하여 영수가 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을 보면, 노론 내에서 옥소의 위치와 함께 그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짐작된다.²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옥소의 「몽기」는 단순히 꿈속의 기승을 즐기 기 위함이 아니었다. 꿈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심리가 드러나는 곳이다. 옥소는 꿈이 지닌 徵驗性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며 이를 믿었다.²¹⁾ 삶의 고뇌와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옥소의 바람이 꿈속에서 奇勝을 찾아 노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말해, 「몽기」는 현실에서 충족

18) 權燮, 「述懷詩敍」, “稟性疎闊, 無事得謗.” 「自述年紀」. “八度竄謫, 三渡大海, 而不行世則不然, 壽命齊彭祖矣.”

19) 權燮, 『玉所稿』 冊7, 「散錄內篇」 1, p.233, “誠可怪也, 可疑也, 誠可笑也. 吾一人身也, 中年以前, 一言之出, 千百人信之; 一事之作, 千百人誦之. 中年以後, 侮其言而訾其事者過半, 信而誦之者僅僅焉.”

20) 權燮, 『玉所稿』 冊7, 「散錄內篇」 1, p.518, “崔辰砂昌億來曰: ‘君何來居此鄉, 不收拾士論而作領袖乎?’”

21) 權燮, 『玉所稿』 冊8, 雜著4, 「題夢讖後」.

되지 못하는 욕망을 대리 충족하는 문학적·예술적 표현인 것이다.²²⁾

다음으로 해암 유경종의 「의원지」를 보자. 해암은 진주 유씨로 여흥 민씨·사천 목씨와 함께 근기남인의 3대 가문이었다.²³⁾ 이 시기 남인은 노론과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었으며, 환국이 반복되면서 부침을 거듭하였다. 남인은 1680년의 경신환국, 1694년 갑술환국을 거치면서 몰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결정적으로 1728년 무신란을 계기로 정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해암의 가문은 남인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해암의 가문은 7대조 柳榮門에 이르러 기틀이 마련되었고 두 아들 柳格과 柳根이 선조대에 출사한 이후, 증조부 柳頴과 조부 柳命賢이 가세를 확장시켜 근기남인의 3대 가문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증조대의 柳頴이 선조의 부마가 되어 안산 漁所의 魚鹽權과 일대의 賜牌地를 하사 받은 후 가문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후 안산은 진주 유씨의 주요한 삶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조부대에 이르러 가문이 정치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柳命賢·柳命天·柳命賢 삼형제는 기사환국(1689) 당시 노론을 탄핵한 주동자들이었는데, 갑술환국(1694)과 1701년 장희재 역모사건을 거치며 몰락하였다. 이후 1728년 무신란 때 숙부인 柳徠가 안동 판관으로 나갔다가 반란에 연루되면서 가문이 크게 위축되었다. 유래는 끝내 장살 당하였고, 해암의 아버지 柳耒는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사망하였다.

당시 해암은 16세였는데 가문의 연장자로서 사촌 동생인 柳慶農과 柳慶容 등과 함께 가문을 이끌어야 했다. 22세 때 지은 「東遊錄」에서 “幽憂之疾을 앓다가 의사의 충고로 金剛山 기행에 나섰다.”²⁴⁾라 하였듯이,

-
- 22) 이주경은 옥소의 『畫夢帖』이 眞界를 얻지 못하여 幻境에 뜻을 담아낸 것이라 하였다. (李周卿, 『玉所稿』 冊11, 「書權調元畫夢帖」, pp.322-323, “然其不得乎眞界, 而寓意於幻境, 要之君與我一也. 是奚異於飢者之夢餅, 渴者之談河耶? 思之良可慨然.”)
- 23) 이하 해암의 가문과 생애에 대해서는 김동준, 「海巖 柳慶種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13-25.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24) 柳慶種, 「東遊錄」, “乙酉四月初六日丙午晴. 述齋子, 以幽憂之疾, 從醫言, 欲

당시 해암은 깊은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산수 유람을 통해 정신적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해암은 무신란 이후 서울 집을 떠나 안산으로 낙향하였으며, 출사를 포기하고 평생 안산에서 지냈다. 평생의 지기였던 강세황에 따르면, 해암은 色目을 의식하여 끝내 과거를 거부하였다고 한다.²⁵⁾

해암은 30대에 들어 차츰 안정을 찾아갔으며, 안산의 정재골에 海巖洞天을 경영하면서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그런데 37세에 사촌동생 유경농이 27세로 요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경농은 숙부인 유래의 아들인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숙부의 신원을 담당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시문을 정리해주던 지기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암은 병을 앓게 되었으며, 42세 되던 해에 스스로 詩稿를 불살라 버리고 문필활동을 거의 중단하였다. 「의원지」는 바로 이즈음, 1756년 43세에 창작되었다. 다음은 「의원지」의 서두이다.

意園은 마음[意]으로 정원[園]을 만든 것이다. 정원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그것을 지었으니,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마음에 그려보니 정원이 곧 내 눈 앞에 나타나 뚜렷하게 보인다. 무릇 정원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마음에 두었던 것은 아닐 터이고, 마음에 두었다고 또한 반드시 정원을 소유하게 될 일도 아니다. 이 모두는 서로 병통이 있는 것이지만, 마음에 두지도 않았는데 정원을 소유한 자가, 정원은 없으나 마음속에 담아둔 자보다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조잡한 자취일 뿐이로다. 사람이 한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들 깃들여 살지 않은 이가 있겠나마는, 그런데 구구하게 진짜냐 가짜냐 구별할 것인가?²⁶⁾

作山水遊, 卜是日, 東向金剛.” 김동준, 위의 논문, 2003, p.24.에서 재인용. 이하 유경종의 시문 중에서 「의원지」 이외 자료는 김동준(2003)의 논문에서 재인용한 것이며 특별히 면수를 명기하지 않는다.

25) 姜世晃, 『海巖柳公行狀草』(草稿本, 진주유문소장본) “只以區區色目, 瑣瑣科第, 殆若廢, 而不究用天之報.”

26) 柳慶種, 『漫稿』(후손가장본) 冊11, 「意園誌」, “意園者, 以意爲之園也. 園未作

전근대 사대부문인들에게 상상의 공간을 글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때문에 그리 환영받을 일이 아니었다. 단적으로 16세기 전후로 활발히 창작되었던 「神明畬記」를 들 수 있다. 「神明사기」는 마음을神明사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하여, 외물에 흔들림 없이 본성을 지키는 것을 우의적으로 표현 글이다. 南冥 曹植은 「神明畬圖」에서 마음[心]을 城郭, 建物, 關門 등 하나의 실재하는 공간처럼 그렸으며, 「神明사명」을 지어 大一眞君이 明堂에 앉아 정사를 펼치는 방식으로 ‘存養省察-審幾克治-止於至善’의 수양론을 설파하였다. 내용으로 보면 성리학적이념을 담은 것인데, 退溪 李滉은 이를 두고 『노자』·『장자』에도 없는 글이라 비꼬았다.²⁷⁾ 퇴계는 우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허구성과 戲作性으로 인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의 본의나 진지함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⁸⁾

이런 때문에 해암은 「의원지」의 서두에서 현실에 실재하지 않는 意園이란 공간을 설계하게 된 이유를 우선적으로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해암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나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정원을 소유하고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자보다는 실제 정원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이를 담아두는 자가 낫다고 하였다.

而意先之, 可乎? 意之而園便在吾眼中, 可歷歷矣. 夫有園者, 未必有意, 而有意者, 又未必有園. 是蓋交相病焉, 則無意而有園者, 未若無園而有意者也. 然是皆粗迹耳. 人生一世, 孰非寄寓, 而區區焉眞妄之別乎哉?” 「의원지」의 번역은 안대회(2001)과 김동준(2003)을 따랐으며 필요한 부분은 필자가 수정하였음.

- 27) 李滉, 『退溪集』 卷20(叢刊29), 「答黃仲舉」, p.497, “雞伏堂銘, 深荷錄示. 但其說曠蕩玄逸, 雖於老莊書中, 亦所未見. 既未嘗學, 焉敢議及? 其人固非尋常, 而其學又難學也.” 성호는 퇴계의 이 말이 남명을 기롱한 것이라 하였다. 李滉, 『星湖僊說』 卷30, 「南冥先生文」, “曹南冥先生作文甚奇. 退溪見其雞伏堂等銘曰‘南華書中不曾見’, 此蓋譏之也.”
- 28) 남명의 「神明사기」를 비롯하여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에 창작된 이른바 心性 擬人體 寓言에 대해서는 안세현,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언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참조.

그렇다면 해암은 왜 상상의 정원을 꿈꾼 것인가? 해암이 보기에 石崇이나 宗炳조차도 조물주가 내려준 淸福을 다 누리지 못하였다. 부귀하고 현달한 자는 즐길 시간이 없고, 가난한 자는 財力이 없으며, 젊어서는 병이 많고 늙어서는 살아갈 날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불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缺陷界인 것이다. 그리하여 부귀한 사람은 淸閑을 그리워하고 빈천한 자는 榮顯을 꿈꾼다. 그러나 누각을 마련한 자 중에 歸休한 자가 없고, 산수를 좋아하는 자는 경제력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²⁹⁾ 해암이 보기에 이 세상은 온통 결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결함을 완전히 해소할 길이 없다.

아! 인생 백년은 유한하고 뜻과 세상일이 서로 어긋나니, 살아도 데려갈 수 없고 죽어도 가져갈 수 없다. 몸이 바쁜 사람은 쉬이 누릴 여유가 없고, 힘이 없는 자는 매양 부족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품는다. 미래의 일에 대해 망령되어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方外에 마음을 노닐게 하는 것이 낫다. 經理에 온 힘을 쏟기보다는 붓끝에서 이루어내어 끝내 수고로움을 내버려두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즐거움을 붙인다면 득실은 알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이야말로 내가 마음을 정원으로 삼는 이유이니, 이렇게 되면 정원이 애초부터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³⁰⁾

인간의 삶은 유한한데다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

- 29) 柳慶種, 『漫稿』(후손가장본) 冊11, 「意園誌」, “夫石季倫有別墅而未歸臥, 則寄之序也. 宗少文有疾而難遍游, 則託于畫也. 輞川暫, 而碧池惡矣, 平泉奢, 而朱崖遠矣. 歷選前古, 其能享有眞樂者, 惟白傅之履道庄, 羅景綸之鶴林幽居數人者耳, 亦太寥寥矣. 造物者之喜弄人, 而靳與人淸福者, 有如是夫, 而內典之以此世爲缺陷界者, 詎不信歟? …… 故富貴者慕淸閑, 貧賤者夢榮顯. 置亭臺者, 罕有歸休, 愛山水者, 困於財力. 谷居者少夷曠之致, 川觀者乏窈窕之趣, 鳧短鶴長, 角與齒奪, 或少而多病也, 或老而無餘日也.”
- 30) 柳慶種, 『漫稿』 冊11, 「意園誌」, “嗟乎! 百年有涯, 志事互違, 生無帶來, 死不將去. 身忙者未易消受, 力匱者每懷歎恨. 與其妄想於未來, 孰若游心於方外. 有□彈□經理, 毋寧就成于筆端, 畢竟斷置勞逸, 懸矣. 聊復寄娛, 得失可見矣, 是余之志也. 是余之所以以意爲園, 而園未始不在也.” □은 원본의 공란을 표시한 것임.

다. 따라서 미래에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해 망상을 좇고 온 힘을 다해 애쓸 필요가 없다. 차라리 마음을 방외에서 자유롭게 놀게 하고, 이룩하고 싶은 것을 붓끝에 펼쳐놓아 그것을 즐기면 그만이다. 이것이 바로 해암이 의원을 글로 쓴 이유이다. 「의원지」를 지은 당시 해암은 가문이 몰락하여 좌절감 속에 삶을 이어온 데다, 친족이자 지우인 사촌 동생 경농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었다. 결국 해암은 상상의 정원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즐거으로써 현실의 괴로움을 해소하려 하였던 것이다.

옥소는 노론, 해암은 남인으로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었지만, 둘은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까지 이어졌던 극심한 당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고립된 지식인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옥소와 해암은 모두 ‘無名’이라는 호를 사용한 적이 있다. 옥소는 54세인 1724년 「자술연기」에서 자신을 ‘無名翁’이라 칭했다. 옥소는 한 해전에 장자를 잃고 깊은 실의에 빠져 있었다. 해암은 사촌 동생을 잃고 거의 절필하였던 기간에 자신을 “향리의 無名漢이요, 산림의 有髮僧”³¹⁾이라 칭하였다. ‘無名’, 곧 이름이 없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운다는 의미이다. 이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철저히 고립된 존재로 자처하는 것이다. 요컨대 옥소와 해암은 현실 정치에서 소외된 지식인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淸福을 「몽기」와 「의원지」를 통해 그려보고자 한 것이다.

Ⅲ. 문학·회화의 교섭과 閑適의 형상화

「몽기」와 「의원지」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기문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는 점이다. 도연명은 「桃花源記」에서 상상의 이상 세계를 글로 형상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전기에 안견이 「夢遊桃源圖」를 그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상상의 공간을 기록한 기문과 동시에 이를 그림으로 그

31) 柳慶種, 「又次燈子韻二首」其一, “鄉里無名漢, 山林有髮僧.”

려서 함께 향유한 사례는 흔치 않다. 옥소의 「몽기」에서 그림은 주로 옥소의 동생인 權瑩(1678-1745)과 손자인 權信應(1728-1787)이 그린 것이다. 현재 강세황이 그렸다는 「의원도」는 전하지 않으나, 해암이 1762년에 「題意園圖」이란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강세황이 해암을 위해 그림을 그려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²⁾ 그렇다면 이들은 상상의 공간을 기문으로 지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왜 그림으로 그려서 함께 향유하려 한 것일까? 해암은 「의원지」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劉公麟이 누각에 살기를 좋아하였으나, 가난해서 누각을 지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인 文徵仲(곧 文徵明, 1470-1559)이 그를 위해 「神樓圖」를 그려주었다. 나의 의원 역시 이와 같으니 그 뜻을 죽히 즐길만하다. 忞齋 姜光之(姜世冕)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에게 意園圖를 그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한 뒤에야 나의 노닐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겠는가?³³⁾

상상의 정원을 글로 지은 것은 현실적 여건상 실제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암은 상상의 정원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기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세황은 해암과 처남 매부 사이이자 평생을 지우로 지낸 인물이다. 해암은 강세황 외에도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 화가인 許佖과도 교류하였다. 당시 해암을 비롯하여 강세황·허필 등 안산의 문인들은 柳慶容의 淸聞堂에 모여 자주 모임을 가졌다. 1747년 강세황은 이를 기념하여 「玄亭勝集圖」를 그렸으며, 여기에 해암이 기문을 붙였다. 강세황은 1748년에 해암의 사촌인 柳

32) 한편 강세황이 1766년에 지은 「豹翁自誌」(『豹菴遺稿』,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 1979.)를 보면, 1763년(영조 39) 아들 姜侁이 문과에 급제하였을 때, 영조는 말세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많으므로 강세황에게 다시는 그림을 잘 한다 하지 말라고 하였다. 강세황은 이 말을 전해 듣고 1782년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33) 柳慶種, 『漫稿』 冊11, 「意園誌」, “劉公麟者, 性好樓居, 而貧無力可構, 友人文徵仲爲作神樓圖與之. 余之園亦猶是也, 而其志足樂也. 忞齋姜光之善於畫, 且約爲作意園圖夫. 然後吾之遊, 豈不足於意乎?”

慶容을 위해 「池上篇圖」를 그려주었다. 이 그림은 소박하면서도 한적한 전원의 삶을 노래한 백거이의 「지상편」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이 그림에는 유경용의 기문이 함께 적혀 있다.³⁴⁾ 요컨대 해암을 비롯한 안산권의 문인들 사이에 그림에 기문을 붙이거나 기문을 그림으로 그리는, 문학과 회화를 교섭하여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옥소는 그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손자인 권신응에게 그림 공부를 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정선·조세걸 등 당대 저명한 화가들과 교류하였다. 『옥소고』에는 당대 여러 화가들의 그림에 대해 평한 글이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³⁵⁾ 특히 옥소는 18세기에 활동한 藝人 16명을 대상으로 「十六贊」(『玉所稿』 冊8)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정선, 洪受疇, 李夏英, 조세걸, 金振汝, 金翊胄 등 화가였다.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서울에서는 이른바 農淵 그룹이, 18세기 중·후반 근기지방에서는 안산의 이용휴와 강세황 등이 문학과 예술을 주도하고 있었다. 옥소와 해암은 18세기 서울과 근기 지방을 중심으로 문학과 회화의 교섭이 활발하였던 풍정 속에서 성장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던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옥소와 해암은 기문뿐만 아니라 그림까지도 함께 향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몽기」와 「의원지」에 그려져 있는 풍경을 살펴보겠다. 먼저 옥소의 「몽기」 중에서 「해도별서」의 기문 일부와 그림을 인용해 본다.

작은 배에 올라타고 바다로 나가 동쪽을 향해서 갔는데, 돛이 바람에 펄럭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천 리나 지나갔다. 잠시 후에 물이 뒤도는 곳에 정박하고 올려다보니 기이한 바위가 우뚝하게 솟아 있었고, 나무숲이 뿔뿔하게 우거지고 급한 물살은 요란하게 흘렀다. 위에는 높은 정자 하나가 있었는데, 단청이

34) 고연희, 「정원의 꿈: 지상편도」, 『그림, 문학에 취하다』, 아트북스, 2011.

35) 『옥소고』에 전하는 그림에 대한 제발문은 60대 후반기 이후에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옥소의 관심은 정선과의 교류가 있었던 젊은 시절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윤진영, 앞의 논문, 2007, p.160.)

환하고 화려하여 마치 재상이 몰려나 한가롭게 지내는 곳인 듯하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배에서 내려 녁쿨들을 붙잡고 올라가 보니, 기이한 꽃과 풀들이 정원과 섬들에 뒤섞여 심어져 있다. 여덟 그루의 소나무가 정자의 좌우에 늘어서 있었는데, 푸른 솔가지와 붉은 나무껍질이 마치 老龍의 형상 같았다. 다시 한 마을로 들어가 보니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현란하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돌아올 때에는 달빛이 대낮과 같았으며, 맑은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 구름 속에 있는 절간을 바라보니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난간에 기대 앉아 낮은 소리로 옛 사람의 시를 읊조리노라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같았다. 잠시 뒤에 세 사람이 나란히 이르렀는데 다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었다. 나가서 맞이하고는 함께 자리에 앉아 술을 권하면서 시를 지었다.³⁶⁾



옥소가 「해도별서」의 말미에서 언급하였듯이, 옥소의 「몽기」는 백사 이항복이 지은 「기몽」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옥소의 장인인 李世彌은 백사 이항복의 증손이다. 옥소는 장인 이세필로부터 經史百家를 배우고 그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하였다. 옥소는 장인 이세필을 통해 백사의 학문과 문학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사는 象村 申欽의 전언에 따르면 老莊과 佛敎를 비롯하여 천문과 풍수, 그림과 의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통달했다고 한다.³⁷⁾ 또한 백사는 문장에서 氣를 중

36) 權變, 「夢記-海島別墅」, “乘小舟浮大海而東去, 風帆翩翩, 一瞥千里. 俄泊于水滙處, 仰見奇岩峯然而高, 樹林蒙密, 飛湍喧騰. 上有一高亭, 丹碧炯煌, 似是宰相退閑之所, 而不見其人. 遂舍舟攀援而登, 奇花異草, 雜植于庭除. 又有八松, 左右排立, 蒼髯赤甲, 如老龍狀. 轉入一洞, 桃花爛發, 眩不可定視. 歸來月色如晝, 清風乍起. 望見遠寺, 寄在雲間, 鐘聲隱隱而聞. 倚檻而坐, 微吟古人詩, 若有所待, 俄有三人聯袂而至, 皆故相識也. 出而迎之, 合席而坐, 命酒賦詩.”

37) 申欽, 『象村稿』 卷26(叢刊72), 「領議政白沙李公神道碑銘」, p.90, “老莊之玄放, 仙佛之妙悟, 靡不領會其旨; 星象堪輿之家, 虎頭岐黃之藝, 亦皆通曉而不加竟也.”

시하고 新奇를 추구하였다.³⁸⁾ 백사가 「기몽」과 같은 글을 남긴 것은 바로 이러한 학문적·문학적 경향 때문인 것이다.

백사의 「기몽」은 46세인 1601년 정월 꿈속에서 別墅를 두 차례 노닐 것을 기록한 것이다.³⁹⁾ 백사는 이 글에서 현실에서 공을 세우고 이제 은퇴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자 하는 淸福의 소망을 드러내었다. 옥소 역시 백사와 마찬가지로 「해도별서」에서 淸福을 희구하였다. 옥소는 홀로 작은 배를 타고 대해를 건너 외딴 섬에 도착한다. 섬 위에 있는 정자에서 옥소는 벗들과 함께 술 마시고 시를 읊조리며 즐겁게 지낸다. 여기서 “한 마을로 들어가 보니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현란하여 바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연상시킨다.⁴⁰⁾ 이는 곧 해도별서가 세속과는 단절된 곳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멀리 구름 속에 있는 절간을 바라보니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는 것은 절처럼 세상이 들리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요컨대 해도별서는 바로 세속과 단절된 공간이며, 이곳에서 옥소는 세상사를 잊고 淸福을 누리길 희구한 것이다. 옥소의 종제 권소는 이러한 옥소를 두고 자유로이 떠돌며 세상사를 잊은 사람[放浪遺世人]이라 하였다.⁴¹⁾ 「해도별서」에 그려진 옥소

38) 서한석, 「백사 이항복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63-76.

39) 李恒福, 『白沙別集』 卷4(叢刊62), 雜記, 「記夢」, p.418. 백사의 「기몽」에는 별서의 풍경이 눈에 보이듯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백사는 꿈에서 깨어난 후 화가를 시켜서 그림을 그리려 했다고 한다. 백사는 임진왜란 때 5회 병조판서를 역임하며 軍務를 전담하였고, 명나라 원군의 접반 업무에도 매진하였다. 그러다가 1600년 백사는 梧陰 尹斗壽를 이어 영의정에 올랐다. 꿈속에서 백사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오음의 별서였다. 오음은 이때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南坡에 거처하며 여생을 즐기고 있었다. 백사는 꿈을 꾸 한 달 뒤 병으로 사직을 청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40) 『옥소고』에는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차운한 글이 3편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옥소가 도연명의 삶과 문학을 상당히 흠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 權燾, 『玉所稿』 冊11, 「題從氏奇夢詩序帖後」, p.321, “我知之我從氏必非尋常庸衆人也, 放浪遺世人也.”

의 모습은 시회를 열어 벗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閑適한 생활을 만끽하는 것이다.

옥소가 19세 때 품었던 별서에서의 청복은 청풍의 한천장·능강동과 같은 장원의 경영으로 실현되었다. 옥소는 「亭閣錄」에 장원 경영의 구체적 과정과 내용을 글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림으로도 그려놓았다.(「寒泉莊圖」) 그렇지만 옥소는 바닷가에 정자를 지으려 하였던 바람이 만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에 아쉬워하였다.⁴²⁾ 실제 한천장과 능강동이 어떻든 간에 옥소는 꿈속에서 그곳을 노닐고 이를 다시 글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즐겼다.⁴³⁾

옥소의 「몽기」처럼 꿈속에서 상상의 공간을 유람한 기문으로는 몽유록과 기몽을 들 수 있다. 몽유록은 기본적으로 허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꿈을 빙자해서 작가의 불우함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을 우의적으로 드러낸다. 기몽은 개인적인 꿈을 기록하는 것이긴 하나, 주요 내용은 꿈속에서 어떤 인물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겪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단적으로 옥소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노론계 처사 安錫傲(1718-1774)이 30대 초반에 지은 「夢記」(총11편)를 보면, 꿈을 통해 동시대의 벗, 선배 문인, 중국의 성현과 문인, 정체 미상의 인물과 대화하며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성찰하는 내용이 중심이다.⁴⁴⁾ 그러나 옥소의 「몽기」에 그려진

42) 權燮, 『玉所稿』 冊7, 「散錄內篇」 1, pp.229-230, “每逢勝區名村, 思欲居之, 見於畫境界, 亦未嘗不起想耿耿. …… 如今之泉南·寒泉·凌江·丈湖·花枝, 則來往棲息, 終老無咎, 爲窮途之至喜. 唯是海上之亭, 至今辦未得, 行年已六十六矣. 餘日無多, 海上之亭, 嗟乎終不可成矣. 己巳八月初吉之夢, 戊子至月十三日之夢, 誠有冥緣, 則亦吾生之一世界耳. 自他日言之, 且何辨其眞贗.” 기사년 8월1일 꿈은 「해도별서」이며, 무자년 11월 13일 꿈은 「방해고각」을 말한다.

43) 옥소는 한천장과 능강동에서 사는 즐거움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었다.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더구나 붓 끝의 세계가 사실과 흡사함에라 어찌하여 그림 속 세계가 사실과 흡사한가? 꿈속에서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없네.[吾居如畫圖中, 更是筆端逼真. 何言逼真如畫? 不辨一夢吾身.]”(「夢記·寒泉庄·凌江洞」)

세계는 세속과 격절된 공간이며, 그림으로 묘사 가능한 공간 중심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문과는 다르다. 옥소의 「몽기」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해설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자를 비롯한 꽃과 나무 등을 눈에 보이듯 자세히 묘사하였다. 사건 중심의 서술보다는 경물의 공간 배치에 신경을 썼던 것이다.

다음으로 해암의 「의원지」를 보자. 해암은 먼저 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 환경, 건물에서부터 식물, 동물, 집안을 채우고 있는 용구와 도서 등 갖가지 物名을 나열하였다. 그 중에서 식물을 나열한 부분을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그곳에 소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두충나무, 적목나무, 박달나무, 회나무, 비자나무, 대나무, 파초, 매화, 오동나무, 무궁화, 석류, 느티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앵두나무, 배나무,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구기자나무, 포도, 난초, 국화, 뽕나무, 마, 닥나무, 율나무, 오이, 박에다 파, 생강, 마늘, 토란, 무, 겨자, 아욱, 가지, 부추, 배추 등의 여러 채소와, 琪花瑤草, 美木花卉, 崑, 약 모종, 창포, 원추리, 등나무, 머루, 당귀, 이끼, 연꽃, 지초, 순채, 마름 따위의 식물을 심는다.⁴⁵⁾

이는 韓愈의 「畫記」를 연상시키는데, 식물의 종류를 번다할 정도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집안을 채우고 있는 여러 물건 중에서 印章, 古器, 墨刻, 畫卷 등이나 서책 중에서 稗乘小說, 道釋二藏 등을 특기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⁶⁾ 여기에서 취미 생활을 자유롭게

44) 강혜규, 「삼교 안석경의 꿈과 내면세계」, 『한문학논집』 34, 근역학문학회, 2012.

45) 柳慶種, 『漫稿』 冊11, 「意園誌」, “有松栴榆柳, 杜冲赤木, 檀檜栢樞, 竹蕉梅桐, 槿榴槐杏, 桃李櫻櫻, 梨栗柿棗, 杞菊蘭菊, 桑麻楮漆, 瓜瓠葱薑, 蒜芋菁芥, 蔡茄韭菘, 諸蔬菜, 異草名花, 嘉木美卉, 豆莢藥苗, 菖萱藤蓂, 薛荔苔蘚, 荷芝蓴菱, 諸植物焉.”

46) 柳慶種, 『漫稿』 冊11, 「意園誌」, “有香爐茶具, 藥奩印章, 彝鼎古器, 如意塵尾, 琴棋簫磬, 墨刻畫卷, 筆硯紙墨, 丹鉛燈燭, 漏箭籌囊, 詩牌投壺之蓄焉. 有古書三四千卷, 經史百家集, 稗乘小說, 道釋二藏備焉.”

향유하고 도가·불가 등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요컨대 해암은 의원을 자신의 “마음에 즐겁고 뜻에 맞으며 보기에 즐겁고 듣기에 좋은 것⁴⁷⁾”으로 채워놓은 것이다. 이렇듯 해암에게는 玩物喪志에 대한 경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의원에서 생활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자. 「의원도」는 현재 전하지 않으나, 참고삼아 강세황이 1748년에 그린 「지상도편」을 함께 제시한다. 강세황이 「의원도」를 그렸더라면, 아마도 이 「지상도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폭포가 흐르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날이 맑고 비가 오고 어둡고 밝음에 따라 경물은 제각기 바뀌는데, 그 어느 것이나 빼어난 승경 그윽한 아취라 아니할 수 없다. 바람이 불면 서늘한 바람 쏘이고, 추우면 햇볕을 쏘인다. 아침이면 꽃에 물주고 저녁이면 오이발을 맨다. 새벽에는 산을 보기에 적절하고, 밤에는 달구경하기에 알맞다. 낮에는 독서하고 글씨 쓰기에 좋은데, 틈이 나면 거문고를 뜯고 차를 끓이며 그림을 감상하고 바둑을 둔다. 어떤 때에는 물가에 나가 물고기를 낚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캔다. 시를 읊어 자연을 노래하고, 초목을 심어 잘 기른다. 경물을 꾸며 승경을 만들어서 산림의 경계로 삼으니, 알맞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에 즐겁고 뜻에 맞으며 보기에 즐겁고 듣기에 좋은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주인은 幅巾에다 배옷, 靛衫에다 지팡이 끌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기거하고 소요한다. 살림은 아내에게 맡기고, 농사일은 농부말대로 따르며, 文墨을 아이들에게 전한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추우면 솜옷 입고, 더우면 배옷을 입는다. 마음에 시름이 없고 몸에는 질병의 고생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고, 세상 역시 나를 잊었다.

아이 종과 밥 지을 여종이 각각 네다섯이 있어서 빨감과 물질, 농잠 등의 수고로움과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일을 이바지한다. 들과 시내의 벗이 때때로 들러 글의 뜻을 논하고, 농사일을 헤아려보며, 烟雲泉石의 수려함을 품평한다. 또한 동리에는 僧房이 하나, 산중에는 書塾이 하나가 있어서 왕래할 만한데, 머물

47) 柳慶種, 『漫稿』 冊11, 「意園誌」, “凡據石倚樹, 看雲聽鳥, 玩心適志, 悅乎目而可于耳者, 無一不具也.”

러 강론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조정이나 저자거리의 일일랑 말도 꺼내지 않고, 재물을 묻지 않으며, 사람들의 옳고 그름과 잘나고 못남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생애를 마칠 수만 있다면 죽하리니, 대저 나의 소원이 이와 같다.⁴⁸⁾



【姜世晃, 「池上篇圖」, 1748년(36세) 作, 개인 소장】

인용문에 보이는 주인의 모습은 16세기 사림의 ‘壺中天地’와는 다르다.⁴⁹⁾ 16세기 사림 문인들은 향촌에서 누대와 정사 등을 포함한 원림을 조성해 놓고, 이곳에서 시회를 열거나 학문을 도야하며 은자적 삶을 영

48) 柳慶種, 『漫稿』 冊11, 「意園誌」, “春之花也, 夏之瀑也, 秋之楓而冬之雪也. 晴雨晦明, 物態隨別, 而無非所謂勝景幽趣也. 風而納涼, 冷而迎暄也. 朝灌花, 而夕鋤瓜也. 晝宜看山, 而夜宜賞月也. 晝日則宜讀書習字, 以暇時則鼓琴煮茗, 觀畫看奕. 或臨水而釣魚也, 登山而採藥也. 嘯咏品題, 栽培樹藝, 以點粧景勝爲山林之經濟者, 無不宜也. 凡據石倚樹, 看雲聽鳥, 玩心適志, 悅乎目而可于耳者, 無一不具也. 主人幅巾布袍, 芒屨藜杖, 以宴息偃仰消搖徘徊于其中也. 米鹽付之室婦, 田事聽之庄客, 文墨傳之兒子, 飢能有食, 而渴能有飲也. 寒有絮, 而暑有葛也. 心無憂惱, 而身無疾病之困也. 吾無求乎世, 而世亦忘我也. 有童奴爨婢, 各五四人, 以供薪水農蠶之役, 掃除使令之用焉. 野翁溪友, 以時相過, 從談文義, 商稼穡, 評烟雲泉石之勝焉. 亦有洞裏一僧房, 山中一書塾, 可以往來, 留止講論而爲樂也. 不談朝市, 不問財賄, 不言人是非藏否, 如是以終一生, 足矣. 盖余之所願欲者如此.”

49) ‘호중천지’는 ‘호리병 속의 별천지’라는 뜻으로 위진남북조시대에 대두하여 중唐 이후 중국 고전원림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작용한 원림미학을 의미한다. 호중천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협소한 원림공간이나 그곳의 미세한 경물을 통하여 江海와 같이 거대한 예술 공간을 창조하는 데에 있다. 김창원은 ‘호중천지’의 원림미학을 원용하여 16세기 강호시조를 설명한 바 있다. (김창원, 「“壺中天地”의 園林美學과 <陶山十二曲>의 江湖」, 『국어국문학』 118, 국어국문학회, 1997.)

위하였다. 일례로 도산서당은 퇴계가 모든 구애로부터 벗어나 온갖 경물들과 어울려 노리는 자유의 공간이자, 미소한 경물을 통해 무한광대한 우주의 본체를 체현하는 공간이었다.

이에 반해 의원의 주인은 그저 의원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소박하고도 정감 있는 생활을 즐긴다. 조정이나 세상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書塾이나 僧房에서 중과 강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주인이 세상에 바라는 것도 없고 세상 역시 주인을 잊었다. 그리하여 주인은 시름도 없이, 질병도 없이 그저 한평생을 마치면 그것으로 족하다. 주인에게 의원은 도연명의 「飲酒」와 「五柳先生傳」을 연상시키듯, 번잡한 세상사를 잃고 閑適을 즐기는 공간이다.⁵⁰⁾ 실제로 해암은 안산에 海巖洞天을 경영하였는데, 「의원지」에서 보여주는 삶은 이를 토대로 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⁵¹⁾

옥소의 「몽기」와 해암의 「의원지」는 세속과 단절된 공간에서 한적을 즐기는 삶을 그려내었다. 이는 결국 상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고립된 삶에서 오는 우수를 해소하고 좌절된 이상을 재현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몽기」와 「의원지」는 「취향기」·「수향기」의 전통과 일정정도 맥이 닿아 있다. 「취향기」·「수향기」는 술에 취했을 때의 상태를 醉郷, 잠이 들었을 때의 상태를 睡郷이라는 가상 세계로 설정하여 이에 작가의 심회를 우의한 글인데, 唐 王績의 「醉郷記」와 宋 蘇軾의 「睡郷記」에 기원을 둔다. 취향과 수향은 세속적 질서가 無化되고 無爲之治가 이루어지는 도가적 이상향이자, 세상의 지우를 입지 못하거나 세상과 화합되지 못한 이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우수를 해소시키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조선전기에 丁壽崗(1454-1527), 南孝溫

50) 유경중은 37세에 쓴 시에서 “도연명의 시를 낭랑히 읊조리니, 인생이란 스스로 즐길이 귀한 것을[朗詠陶公詩, 人生貨自娛]이라 하였다.(『해암고』 책3, 「韓文公云, 一室之內, 有以自娛. 今余逐之, 能分韻賦之。」其八.)

51) ‘海巖洞天’이란 말은 37세에 쓴 「次鐸侄寄來諸篇」 제14수에 처음 보인다. “詩成驛樹村邊, 書到海巖洞天.”

(1454-1492), 成運(1497-1579) 등이 「취향기」·「수향기」를 창작하였다.⁵²⁾ 특히 성운은 몽유록의 형식을 도입하여 불우한 처지에서 오는 우수와 당대의 부정적인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강개하게 드러내었다.

옥소의 꿈 속 별서나 해암의 의원은 취향·수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공철은 「城東李元佐小園記」에서 이원좌가 조성한 小園을 두고, 은둔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장소라 격찬하면서도, 정원의 경영이 왕적의 취향과 같은 것이라며 이원좌의 불우함을 측은하게 여겼다.⁵³⁾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장원의 경영은 왕적의 취향처럼 현실에서의 좌절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다만 옥소와 해암에게는 불우한 지식인이 지니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강개함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만의 이상 공간을 상상 속에 창조해 놓고 그 속에서 自娛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도연명이나 백거이에게 보이는 閑適에 더 가깝다 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옥소의 「몽기」와 해암의 「의원지」를 대상으로 하여 17세기 후반~18세 중반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가 도달한 결론은 기왕에 「몽기」나 「의원지」를 다룬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종합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옥소와 해암의 차이점을 소홀하게 다룬 문제가 있다. 옥소는 노론의 명문가 출신으로 당쟁에 따른 부침을 겪긴 하였지만, 갑술환국(1694) 이후 노론이 정

52) 안세현, 「조선전기 「醉鄉記」·「睡鄉記」의 창작 양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통권 1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53) 南公轍, 『金陵集』 卷12(叢刊272), 「城東李元佐小園記」, p.220, “嗟夫! 韓子所謂麴蘖之託而昏冥之逃者, 其在斯歟.” “韓子所謂麴蘖之託而昏冥之逃者”은 한유가 「送王秀才序」에서 왕적의 「취향기」를 언급한 것을 말한다. 이 글에 대해서는 심경호, 「화원에서 얻은 단상: 조선후기의 화원기」,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수정증보), 소명, 2002, pp.111-115. 참조.

국을 주도하면서 얼마든지 출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에 반해 해암은 남인으로서 갑술환국과 장희재 역모사건(1701), 무신란(1728) 등을 연이어 겪었고, 1764년 숙부가 신원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출사가 좌절된 상황이었다. 또한 「몽기」와 「의원지」는 모두 잡기류 산문이지만, 「몽기」는 記夢의 전통에 놓여 있으며 「의원지」는 일종의 園記이다.

그러나 본고는 옥소와 해암이 지닌 공통점을 부각시키면서 「몽기」와 「의원지」가 창작된 정치적·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전통 속에서 「몽기」와 「의원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옥소는 노론, 해암은 남인으로 당색은 달랐으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정점으로 치달은 당쟁 속에서 소외·고립된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자발적 선택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든,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강압적인 것이었든, 옥소와 해암의 처지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였다. 그리하여 옥소와 해암은 현실에서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욕망을 「몽기」와 「의원지」라는 상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정신적인 淸福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옥소와 해암은 비록 정치적으로 소외·고립된 처지였으나, 경제적·문화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옥소는 청풍의 한천장·능강동과 문경의 화지장 등의 장원을 경영하였고, 해암은 안산에 근거를 두고 해암동천을 경영하며 만권장서가로서 문화교류의 중심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옥소와 해암은 18세기 문학과 예술을 주도하였던 농연 그룹이나 안산의 남인 그룹에 소속되어 일찍부터 경화 문화의 세례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문학과 회화의 교섭이 활발하였던 풍정 속에서 성장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다. 경화 문화 속에서의 성장과 장원 경영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문학과 회화가 교섭을 이루고 閑適한 삶을 즐기는 自娛의 공간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이는 전대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에 주로 보이는 불우한 지식인의 표상이나 세상에 대한 비분강개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參考 文獻>

- 權變, 『玉所稿』(영인본), 이창희 외편, 다운샘, 2007.
- 權變 著 · 이창희 역주, 『옥소 권섭의 꿈세계: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 데』, 다운샘, 2003.
- 南公輒, 『金陵集』, 한국문집총간272,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 申 欽, 『象村稿』, 한국문집총간72,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 吳 瑗, 『月谷集』, 한국문집총간218,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 柳慶種, 『海巖稿』, 후손가장본.
- 李恒福, 『白沙集』, 한국문집총간62,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 李 滉, 『退溪集』, 한국문집총간29,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 任 埈, 『水村集』, 한국문집총간149,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
- 강혜규, 「삼교 안석경의 꿈과 내면세계」, 『한문학논집』 34, 근역한문학회, 2012.
- 고연희, 「정원의 꿈: 지상편도」, 『그림, 문학에 취하다』, 아트북스, 2011.
- 권정은, 「권섭의 꿈의 기록과 그 심리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6, 한국 문학치료학회, 2007.
- 김동준, 「海巖 柳慶種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 「王世貞 코드로 읽는 生誌銘과 意園: 18세기 안산권 문인들의 불우와 위안의 예술적 형상화」, 『한국한문학회 2013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3.6.8.
-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창원, 「“壺中天地”의 園林美學과 <陶山十二曲>의 江湖」, 『국어국문학』 118, 국어국문학회, 1997.
- 서한석, 「백사 이항복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신경숙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 ,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 심경호, 「화원에서 얻은 단상: 조선후기의 화원기」,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

- (수정증보), 소명, 2002.
- 안계복, 「옥소 권섭의 꿈의 세계에 나타난 경관 특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 안대회, 「상상속의 정원」, 『문헌과 해석』 16(2001년 가을), 문헌과해석사, 2001.
- ,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조선후기 산문가의 기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 , 『고전 산문 산책: 조선의 문장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8.
- 안세현, 「조선전기 「醉鄉記」·「睡鄉記」의 창작 양상과 그 의미」, 『어문논집』 통권 1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연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 윤진영, 「옥소 권섭의 그림 취미와 회화관」, 신경숙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시대 문인의 땅과 삶에 대한 문화사』 4, 휴머니스트, 2006.
- 이창희, 「옥소 권섭의 문학과 <몽기>」, 『비평』 12, 생각의 나무, 2004.
- 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미의식과 시문창작」,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성산, 「옥소 권섭의 학풍과 현실관」,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 조영임, 「玉所 權變의 「夢記」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최호석, 「『옥소고』 소재 몽화의 제작에 대한 연구」,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 황경일, 「옥소 권섭의 산수 산문 연구: 「海山錄」과 「夢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The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Kimun in the Late Choson Period
/ Ahn Se Hyun*

This paper focuses on the Kimun of Kwon Sub and Yoo Kyung-jong in the late Choson dynasty. I tried to analyze the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writings, named Mongki(夢記) and Uiwonji(意園誌). These two articles are about imagined space, and drawings about these articles followed up. So that there are enough reasons to arouse researchers' interests.

Both Kwon Sub and Yoo Kyung-jong were marginalized intellectuals, while they belonged to different faction. And they lived comfortably as they were well off both economically and culturally. Kwon managed several number of manor, and Yoo was one of famous book collector at that time. And they received the benefits of senior scholars. Therefore, they could realize the worth of literature and arts from their early life, and they enjoyed their privileges.

They wrote their desires what they couldn't achieve in their real life through writings. They could solve their realistic limit by writing articles. This attitude is totally different from earlier writings.

【Key words】 Kwon Sub, Yoo Kyung-jong, Mongki, Uiwonji, imagined space, secluded life

투고일 : 10월 28일, 심사일 : 11월 24일, 게재확정일 : 12월 9일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hinese Classical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
/ shahn@kanwon.ac.kr